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대표전화: 02-880-5252

편집팀: 02-880-5217~9

도서주문: 02-889-4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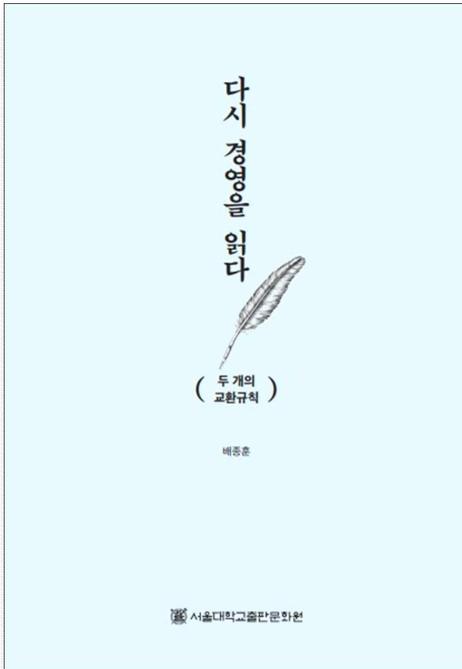
## 신간 보도자료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 다시 경영을 읽다 두 개의 교환규칙

배중훈 지음

판형 : 국판(148\*210)

제책 : 무선

면수 : 160면

정가 : 23,000원

발행일: 2024년 10월 31일

ISBN 978-89-521-3672-5 93320

### 자본주의적 생산은 시장규칙과 기업규칙이라는 두 바퀴로 돌아간다.

흔히들 자본주의적 생산규칙으로서 시장규칙과 기업규칙을 대립하는 것으로 말한다. 하지만 이 책은 분권주의 교환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두 규칙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일반적으로는 시장규칙과 기업규칙이라는 분권주의적 교환을 각각 당사자주의와 제삼자 기반의 교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는데, 저자에 따르면 당사자주의 교환으로 구현되는 시장규칙마저도 실제 현장에서는 교환을 논하는 데 외면되었거나 누락된 제삼자의 영향을 받는다. 제삼자는 교환의 실제 이익과 무관하지만 교환가치 혹은 효력을 판단하는 행위자가 되며, 불편부당한 제삼자는 타자에게 좋은 삶의 범주를 제안함으로써 교환의 자격과 효력, 그 가치를 판단한다.

## 저자 소개

---

### 배종훈

프랑스 인시아드(INSEAD)경영대학원에서 조직이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네덜란드 틸뷔르흐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경영전략을 강의했고,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창업과 변화관리를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여 혁신과 창업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표 공저서로는 『창의적 사고와 삶』(2022), 『ESG 정치경제학: ESG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발전 방향』(2022), *Competitive strategy and challenge for the chaebol*(2018)이 있다.

### 차례

---

머리말

#### 1장 분권화, 모든 이야기의 종착점

#### 2장 대립, 친시장 정책은 친기업 정책과 같지 않다

- 시장 규칙
- 기업 규칙
- 분권화
- 더 읽어 보기

#### 3장 누락, 당사자는 제삼자의 오인이다

- 교환의 자격
- 이익의 경계와 생산의 경계
- 당사자주의와 분권주의의 한계
- 제삼자의 유형
- 계산하지 않는 제삼자
- 더 읽어 보기

#### 4장 가치, 타자에게 인정한 삶의 방식

- 인정받는 것과 공감하는 것
- 두 가지 논쟁
- 더 읽어 보기

#### 5장 상상의 제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 실패의 실천
- 변화 관리
- 시장의 탄생
- 더 읽어 보기

감사의 글  
참고문헌  
Abstract